

《 \_\_\_\_\_\_독서 수행평가\_촉법소년 찬반토론 》

하이에듀

주제	촉법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 - 반대의견
요약	학생의 진로인 체육교육과의 관점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대측 내용이 적합할듯하여 양식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촉법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의 반대

참고문헌:

중앙일보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0736#home>

경상국립대 이동임 2012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보고서

[https://www.krm.or.kr/krmnts/link.html?dbGubun=SD&m201\\_id=10039797&local\\_id=10053367](https://www.krm.or.kr/krmnts/link.html?dbGubun=SD&m201_id=10039797&local_id=10053367)

주장: 촉법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은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논거1: 교화보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촉법소년들의 사회 복귀와 교육이다.

촉법소년법의 연령 하향은 현재의 사회적 변화와 더 맞는 시대적 측면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촉법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만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청소년들의 사회적 환경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분명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아동이 과거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뿐, 어떤 문제에 대한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인권연대에서 공동 주최한 촉법소년 토론회에서는 "처벌 엄벌화보다 보호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며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온전히 지기 힘들다는 시기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에게 처벌보다는 교육과 사회 복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논거2: 일반 교육을 받지 못한 촉법소년은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범죄율 증가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 교육을 받지 못한 촉법소년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된다. 이는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자면, 광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연령 하향보다 반성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광 교수는 “소년은 성인보다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10대 때 범죄 전과가 누적되면 자포자기형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즉,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숙한 시기이므로 일반적인 사회와 격리될수록 결국 중범죄자가 될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 본인 주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촉법소년법 악용: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이용해 중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촉법소년 개화 실패: 사회적 차원에서 미성숙한 시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지만, 개화가 되지 못하고 성인이 됐을 때 중범죄자가 될 수 있다.

## 문제점 해결 방안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 강화: 촉법소년들을 위한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그들이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 강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 해결 방안 마련 방법

1. 회복적 사법과 복지적 사법의 통합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범죄환경의 노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가출 청소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적어도 촉법소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인 절도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지, 덕, 체의 교육강화를 위해 인성교육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초, 중, 고 등의 학교에서 지, 덕, 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를 교육부에서 실시여부 및 결과를 토대로 점검하여 '인성교육인증학교'로 인정하고 팻말을 만들어 학교의 정문에 부착하도록 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감동 프로젝트 1004를 실시하여 청소년범죄예방센터에서 감동적인 영상을 보게 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편지로 만들어 보게 하여 촉법소년이 진정한 감동을 느끼게 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을 유도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